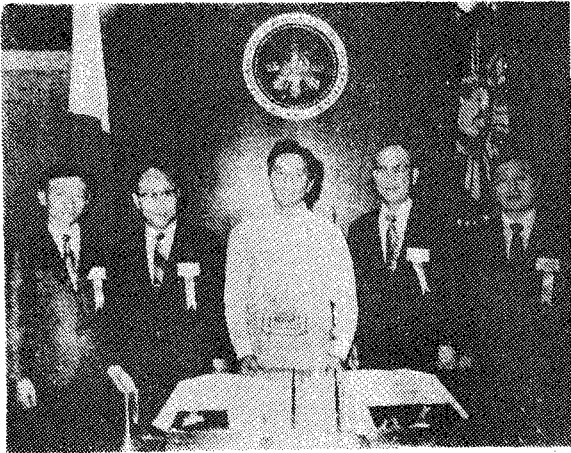


아 세 아 電 子 工 學 會 議 落 穗

正會員 李 太 遠 *

Rhee, Tae Weon, Member

아세아의 團合과 發展을 爲한 電子工學이라는 銘題를 내어걸고 아세아의 15個國과 5個의 國際機構에서 82名의 代表와 專門家들이 모여서 第6次 아세아 電子工學會議가 열렸다. (지난 12月1日 부터 1週日間).



마르코스大統領과의 記念撮影

場所는 Manila Hilton Hotel 의 3層홀. 200個 가량의 白熱電球 하나 하나가 쪽박만한 熱帶海의 조개껍질에 박혀서 眞珠빛을 反射하고 있으며 兩側의 높이 5m 되는 壁面全體가 天井에서 바닥까지 모자이크로된 採光窓인데 그 모자이크가 역시 熱帶海의 조개껍질이고 바닥에는 珊瑚빛의 웅단을 깔았으니 이름하여 珊瑚舞踊場(Coral Ballroom).

Australia 代表의 Harris 氏로부터 Ceylon 代表의 Rajanayagan 氏의 얼굴의 코코넛껍질색에 이르기까지 皮膚色の Spectrum 幅이 매우 넓었다.

各國의 Country Report 와 國際協力の 增進이

라는 큰 議題下에서 1週日間 거이 빈틈없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時半頃까지 每日 會議가 強行되었다. 저녁마다 Reception 이 있기마련이어서 代表들間의 交歡의 機會는 充分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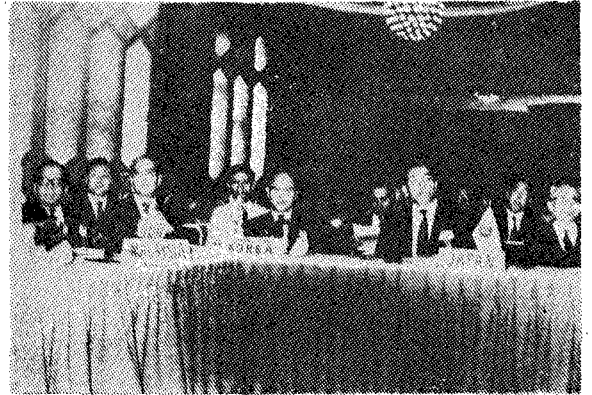
크리스마스캐롤이 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 販賣가 한창인데 무덤기란 서울의 三伏못지 않았다. 그래도 그 고장사람들말에 의하면 乾燥期에 들어서서 1年中 가장 좋은 季節이라는것이 그 程度나 5月같은 때는 어떻게 건디나 궁금하였다. 臺灣, 日本까지 거쳐야할 이런 旅行에 옷도 여름, 春秋冬服까지 고루 갖추어야하니 神經이 쓰였다. 國際會議의 公式席上이고 예아콘도 되어있을터이니 길은 色の 春秋服이면 會議用으로 適合하겠지 夏服은 괜히 가지고 가는가보다 했는데 웬걸 空調가 되었다는 Coral Ballroom 에서도 夏服이 아니고는 건디기 힘들 程度여서 日本의 橋本氏나 中國의 Kung 氏는 숫제 야자樹섬유로된 남방샤쓰 같은 Baron 을 걸치고 있었다. Baron 은 필리핀의 正式服裝으로 여겨지고 Marcos 大統領도 이 服裝이었다.

大統領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會議두번째 날에 官邸인 Malacanan 宮殿에서 大統領의 接見이 있었다. 各國代表를 태운 2臺의 巴士가 宮에 이르렀을때 수십名의 靑年들이 붉은 글씨의 Tagalog 語로 쓴 프랑카드를 들고 응성거리고 있기에 反射的으로 데모로구나 싶었는데 褐色얼굴에 不潔한 長髮의 저저분한 친구들이 흰 이빨을 들어내고 악을 써도 宮의 警備員은 어디서 개가 짖는가보다하는 表情이었다. 異常해하는 우리에게 案内員인 필리핀 空軍의 Matulac 中尉는 저런 示威는 혼히 있는 일이며 내버려두면 맥이 빠져서 흩어지고는 그만이라고 한다. 나라가 3,000餘個의 섬으로 되었으니 行政力이 고루 미처기가 힘들어서 地方에

* 中央大學校 理工大 電子計算所
Computer Center of Joong Ang University

따라 不滿의 表示가 없을리가 없다고 본다. 大統領官邸는 스페인統治時代의 總督官邸였다고 한다. 동키호테가 뒤집어 썼던 것 같은 鋼鐵裝甲옷이 櫥을 세워두고 있는 2層홀 入口에서 芳名錄에 우리 말로 所屬, 姓名, 署名을 記入하고 들어가니 150 坪쯤되는 메인홀의 壁에는 建國의 아버지인 Rizal Hose 와 歷代大統領의 油畫로된 肖像畫가 홀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한쪽구석에는 凱道敎의 나라답게 聖母마리아의 祭壇을 모셔있고 크리스마스 裝飾이 아담하게 마련되어 있었다. 80名의 人員을 이 홀에서 무한정 기다리게 한다. 지루해진 日本의 根岸氏는 Mrs. Marcos 가 稀代の 美人이라는데 한번만이라도 봤으면 원이 없겠다고 농담까지 했다. 한時間은 족히 기다린끝에 Clavecilla 議長이 大統領께서 우리會議에 參加한 各國代表를 接見하시기 위해서 다른 스케줄을 희생하셨으니 執務室에 들어가자고 한다. 한줄로 서서 들어가니 中年의 중기의 Baron 차림의 Marcos 大統領이 차례로 微笑를 지으며 握手를 한다. 朴大統領의 두텁고 뜨거웠던 손바닥에 比하면 힘이 없고 알팍한 느낌이었다. 握手의 節次가 끝나고 各國單位로 代表들과의 記念攝影을 하고 이會議에 모인 各國代表들을 歡迎한다면 Clavecilla 議長에게 不便한 일이 없도록 各別히 留意하라하고 分부를 내리셨는데 나중에 호텔로 돌아왔더니 하이포냄새가 풍기는 그 記念寫眞을 한장에 10 peso(640원)씩에 사라고 한다. 무서운 商魂이라할까. 다들 쓸쓸한 웃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 이상 없는 記念品이라 잘들 사갔다. 나도 한장 사서 호텔의 洗面臺에 가득 채운 물에서 2日間 水洗를 補充한 것이 여기 실린 寫眞이다.

필리핀에서의 郵便物配達이 느린데에는 놀랐다 12月 2日에 發表될 Country Report 를 우리學會에서 11月 15日에 AEC 事務總長인 Asistores 氏에게 發送했으니까 當然히 到着해서 必要한 部數만큼 複寫되어서 Pigeon hole 을 통해서 各國代表에게 配付되었는지했는데 위에 말한 大統領接見이 끝나면 하게될 發表를 한時間半앞둔 時點에서 Pigeon hole 을 살펴보니 다른나라것은 다 있는데 우리나라의 Copy 가 없다. 會議事務局에 뛰어올라가서 文書責任者인 Castaneda 氏에게 따지



니 우리 Report 原文이 그제 接受되어 있지 않다는 기막힌 答辯이다. 全身의 피가 머리로 逆流하여 올라오는듯 했다. 不問曲直하고 지금 原文을 줄터이니 한時間동안에 必要部數를 Copy 해내라고 다구쳤더니 지금 除萬事하고 11페이지나 되는 Report 를 200部나 複寫해서 Stapler 로 꿰매는데 2時間半은 있어야한다고 딱한 表情을 지으면서 議長에게 事情을 해서 韓國의 Report 發表를 늦추어달라던 어떻게든야한다. Alphabet 順으로 하게된 Country Report 의 차례를 바꾼다는 것도 말이 안되니 複寫機를 더 動員해서라도 1時間半 동안에 Copy 가 마련되어야한다. 15日前에 郵送한것을 그제 못받았다니 당신나라의 遞信部의 責任이 아니냐고 半脅迫調로 대어들었던바 如何든 最善을 다할것이니 Malacanyan 宮殿에 다니오는 即時로 自己에게 들리달라고 한다.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한것은 아니겠지만 大統領官邸에서 정보보다 한時間을 더 기다리는 동안에 神通하게도 Castaneda 氏가 말한대로의 時間의 여유가 充分히 마련되어 돌아와보니 鮮明하게 複寫된 The Country Report of Korea 가 Pigeon hole 에 빠짐없이 들어있었고 豫定된 順序에 따라 日本다음에 이어 申副會長님의 朗朗한 목소리로 Country Report 의 要約說明이 이루어졌다.

會議場에서의 各代表들의 發言하는 모습을 보면 Ryuku, Singapore, Ceylon 等の 弱少國家일수록 自己表現을 더욱 극성스럽게 하고저하는 本能의 發露인지 몰라도 큰 意義도 없는 長廣舌을

늘어놓고 있다. Australia의 Harris代表는 1次부터 6次까지 straight로 參席해왔는데 來年이 停年이라 이번이 마지막 會議가 된다고 感像的이었다. 90分間에 걸쳐서 開發途上國家에 電子工業을 育成하는 方案調查報告를 차분히 하여 가장 큰 拍手를 받았다.

中華民國의 Fang次官은 臺灣에서 먼것번 會議를 하였을때의 議長을 지낸탓도 있겠지만 堂堂한 態度로 流暢하게 要領있는 發言을 하고 AEU副議長으로서의 司會도 進行하여 貫祿을 보여주어 UN에서의 逐出따위는 손톱끝만큼의 影響도 받지 않은 눈치다. 하기가 臺灣의 經濟的 安定을 外換率의 變動率로 보면 내가 68年 가을에 갔을때 1US\$=40 NT\$였던것이 지금도 搖地不動으로 그대로인데 우리나라는 280원에서 370원으로 필리핀은 한술 더 떠서 3.9peso였던것이 6.3peso로 올랐다. Manila에서 美貨를 peso로 바꾸려면 그 換率이 銀行에 따라 다르며 Central Bank가 가장 높고 1US\$當 0.2peso의 差가 있다. 이처럼 peso貨의 國際時勢가 下落해도 豊富한 自然資源의 德分으로 GNP는 우리보다 높다.

필리핀의 中上流級이 산다는 Makati의 Supermarket에는 美製나 美國會社와 提携해서 美國商標를 붙인 商品이 山積되어 消費性商品이 판을 치고있다. 거기서 나의 錄音機에 必要한 乾電池를 찾았더니 EVEREADY뿐이고 필리핀國產品은 없다. EVEREADY의 Marker는 Union Carbide인데 그나마도 Singapore에 있는 工場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Union Carbide가 그다지 알려져있지 않지만 밤에 Manila 空港에서 들어가면서 네온싸인看板이 큼직한것이 여섯개가 눈에 띄었는데 美國것은 지금 말한 Union Carbide와 Good Year의 두개고 나머지는 Mitsubishi, Sony National, FACOM 등의 日本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日本이 필리핀에서 歡迎을 받고 있는것같지만 對日感情은 가기前에 들던 것 以上으로 나쁘다. 우리가 도착한 1週日 前에 住友商事의 駐在員 姓名이 白晝에 車를 타고 가다가 自動小銃洗禮를 받고 全員即死한 事件이 있었는데 車窓 유리에서 交叉된 彈痕으로 봐서 殺人請負業者의 所行이었

다하며 우리나라사람을 日本人으로 誤認하는수가 많다니 恐怖感을 皮膚로 느꼈다. 대낮에라도 택시를 혼자서는 타지말라고까지하니 괜히 왔나싶었지만 8日間의 滯在中에는 짧은 時日이라 그랬는지 別일없었다.

Manila에서 여러가지로 親切하게 신세를 베풀어줬던 韓銀의 首席駐在員인 鮮于潤氏말에 의하면 이쪽에서 相對方의 神經을 건드리지 않는 限事故는 當하지않는 法이며 住友商事 事件도 入札을 둘러싼 怨恨이 原因이었고 強盜야 어느나라에도 있는 法이며 봐서 外國人같으면 값진 金品도 지녔을 確率이 自然 클터이니 혹간 가다가 觀光客이 當하는 일이 있는데 으석한 곳 即 良心의 呵責을 받을 만한 곳에만 안가면 걱정할것이 없다고. 이번 會議의 日本代表들의 大部分이 夫婦同伴이라 日本衣裳의 婦人들이 눈에 띄이고 Manila Hilton Hotel의 Front에 勤務하는 아가씨에게도 기모노를 입혀놓은 것을 보니 배가 아파진다.

會議期間中の 唯一한 土曜日에 觀光스케줄을 마련하여 마이크로버스便으로 求景을 시켜준다. 필리핀의 首都는 Manila가 아니라 Quezon으로 옮겨졌으며 Brazil의 Brazilia모양으로 廣大한 地域에 官廳舍들이 군데 군데 서있으며 空地가 많았다.

Manila, Makati, Quezon 등에서 본 現代式빌딩은 그 하나하나가 藝術作品같은 印象을 준다. 틀림없이 建物價格의 相當한 部分을 設計費가 차지한것같다. 우리나라의 所謂 高層建物의 非藝術性이 부끄러워진다. University of Philippines 近處의 Asia Institute of Management 라던가 Makati의 Catholic Hospital은 材質感을 잘 살리고 造形美가 풍기며 南國의 強力한 光線을 받아 色採가 조출하다. Makati의 近來에 開發되었다는 金融街라는 Ajala Street의 兩側에 늘어선 建物의 外觀과 應用美術分野인 쇼우윈도우의 Layout는 歐美의 先進國에 못지않을것 같았다. 電子通信關係施設로 Philcomsat의 衛星中繼地上局, ABC TV局, 그리고 필리핀第一의 電子通信Maker인 Radiowealth를 보았다. 칼라放映도하고 있는 이곳의 國產TV셋트의 國產率은 5%程度이며 外函만이 정말 國產이고 其他모든 部分品

의 配線作業을 하고있을 뿐이어서 臺灣의 Tatung 에서의 부라운튜브를 除外한 모든 部品の 國産에 比하면 形便이 없고 RW120이라는 model 의 SSB Tranceiver 의 製造過程을 봤는데 손잡이까지 日製를 쓰고 있는데 정말 놀랬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늘어놓은 이야기가 거의 開催國의 短點만 든것같이 되었으나 이번會議를 成功的으로 進行하여 나가려는 會議事務局職員들의 連日의 獻身的인 努力은 感嘆하지 않을수 없었다 再昨年 가을 서울에서 開催되었든 國際電氣電子

工學會議를 끝내고 學會가 幾百萬원의 負債를 걸머졌던 일을 생각하니 國際會議의 主催노릇하기가 쉽지않음을 알수 있을 것같다. 制限된 枚數인 지라 끝을 맺어야하겠는데 야자수 사이로 보이는 잔잔한 Manila Bay 에 깨끗한 萬噸級船舶이 夕陽을 받아 장미빛에 빛나던 詩情, 韓銀의 鮮于氏 家族과 함께 Matabungay 의 바다에서 겨울의 海水浴을 하고 水鏡을 끼고 들어가서 珊瑚礁사이의 熱帶魚群을 쫓던 日曜日이 잊어지지 않는다.